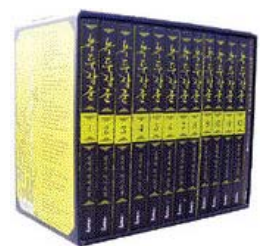


북스

Books

송기숙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 복원



장흥 출신 소설가 송기숙(73)의 역사소설 '녹두장군'(전12권)이 14년 만에 재출간됐다.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은 1백여 년 전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저자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14년 만에 소설을 완성했으며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은 1994년에 출간, 그해 만해문화상을 수상했다.

책은 갑오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전봉준의 생애,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되살렸으며 구수한 호남 사투리와 아름다운 호남의 산하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시대의 창·각 권 1만8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놀이는 창조 본성 자극하는 '보물상자'

놀이, ... 창조의 샘

나흐마노비치 지음·이상원 옮김

위대한 음악가 바흐는 "스승님,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음정을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그건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음정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지 않도록 참는 것이 훨씬 더 힘들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은 바흐처럼 위대한 예술가들이 갖는 그 열정적이고 풍부한 영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탐구한 책이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 시인인 저자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는 그 실마리를 인간의 원초적 유희 놀이에서 찾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창조 작업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것이 바이올린 연주이든, 글쓰기든, 무의식에서 나오는 원재료를 가지고 의식이 한바탕 자유로운 놀이를 벌인다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와 바흐, 베토벤, 브람스, 피카소 등과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사례와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즉흥연주와 작곡, 글쓰기, 그림 그리기, 연극, 발명 등 모든 창조적 행동이 놀이의 다른 형태임을 발견하고 인간을 놀이하듯 존재 하도록 루멘스차원에서 논한다.

그는 놀이를 '독창적인 예술이 꽃피도록 하는 뿌리'이며 예술가가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익히기 위한 원재료'로 규정한다.

그저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보라.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한 그 모습에서 아이와 세상은 다 사라지고 그저 놀이만 남는다. 그러다 창조력이 번뜩이는 순간 일과 놀이는 하나가 된다. 창조적인 작업, 즉 선택된 재료를 바탕으로 한 자유 탐색 작업이 놀이이며 예술인 것이다.

하지만 원재료가 다양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듯 놀이도 창조로 이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의 순수함, 호기심 같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무의식에서 나오는 창조성은 방해 받지 않고 한껏 발휘된다. 에두아르 마네 작 '피리부는 소년'(1866년 작)

저자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창조과정의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회화의 살인마로 평생을 쫓기는 신세였지만 불멸의 신이 아니라 소멸하는 인간을 그려 현실의 이상화가 아닌 이상의 현실화를 구현한 위대

예술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영감이 예술에 이르는 길을 '놀이에서 창조까지' 4단계로 규정한다. 원전→과정(연습)→극복→결실이 그것이다.

창조적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수와 한계의 과정을 맞아야 한다. 저자는 바이올린 연주를 예로 든다.

"악기연주는 전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올바른 연주법을 가르쳐 주는 이론은 아무 소용없다. 반복 연습을 통해 자신의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또 "창조과정은 연습을 통해 추진력을 얻게 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법이 모습을 감춘 채 무의식 속에서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영적 공간, 창조적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독이나 나태, 집착, 욕망 같은 상황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 이를 극복해야 하며 통제와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작곡가 브람스도 베토벤이라는 존재에 압도당해 한 때 좌절하고 1874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 거인(베토벤)이 항상 따라다니는 느낌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네는 모를 걸세"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극복이 이뤄지면 비로소 창조라는 아름다운 결실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직업 예술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마냥 뛰어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다.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창조 작업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걷고 감춰 있는 무언가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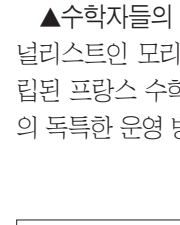
이 책은 인간과 예술을 탐구하는 연구서이나 예술가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예술적 경험을 뜨거운 가슴과 아름다운 선율로 즉흥연주하는 환상적 '음악산책' 같다. 의미 있는 그림과 사진도 감동을 더한다. 음악에 흠뻑 취한다면 독자의 가슴에도 땀방울이 맺어질 것이다. (예코의서재·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다시 발견하는 한국사=역사를 전공한 이한 이 단군신화부터 고려시대까지 4천여년에 이르는 한국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열쇠가 되는 59가지 테마를 이야기했다. 신화공주의 로맨스 주인공은 서동아 아니라 원효대사였다는 식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렸다. (뜨인돌·1만3천원)



▲수학자들의 비밀집단 부르바키=물리학 박사이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모리스 마살이 1930년대 새로운 수학을 천명하면서 설립된 프랑스 수학자 모임인 부르바키에 대해 설명했다. 부르바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영향력, 역사, 의의 등이 담겼다. (공리·1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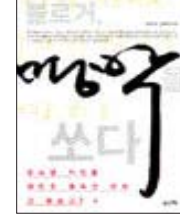
▲지성인을 위한 교양 브런치=강준만 교수가 전북대 학생들이 찬찬한 인터넷신문 '선사인뉴스'에 연재하고 있는 '선사인 명언'을 책으로 묶었다.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의 어록과 여러 책에 나오는 문장 150개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석을 함께 실었다. (인물과 사상사·1만2천원)



▲나도 반역 한 번 해볼까?='시크릿'을 번역한 김우열이 반역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역가로서 입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연봉, 자격 등 반역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74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위즈덤하우스·1만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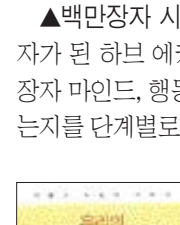
▲점술과 심령술의 역사=파라10대학 현대사학과 교수인 니콜 에델만이 18세기 이후 약 200년에 걸쳐 나타난 투시력, 천리안, 점술, 심령술, 초능력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용어의 기원을 비롯해 사회·역사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살폈다. (예코리브르·1만4천원)



▲블로거, 명작을 쓰다='고소영 라인'을 들춰내 '촌철살인 블로거'로 유명한 블로거 'Eau Rouge'의 주인장 MP4/13(필름)과 '시사전문계의 홍길보'로 불리는 시사평론가이자 방송인 김웅민이 쉽고 재밌게 풀어 쓴 정치풍자 코미디다. (별난책·1만1천900원)



▲IQ 업그레이드=정신과 의사인 프랭크 로리스가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에는 잠자고 있는 두뇌를 깨우기 위해 일명 뇌 호흡법과 뇌 해독법,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법, 두뇌활동을 자극하는 활동법, 뇌 건강을 회복하는 수면법 등이 소개됐다. (문학사상사·1만4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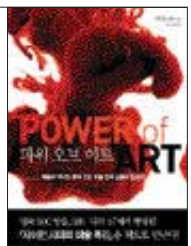
▲백만장자 시크릿=무일푼에서 시작해 불과 2년만 만에 백만장자가 된 하브 에커가 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이밖에 백만장자 마인드, 행동지침 등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이랜드 노동자 이야기=지난해 6월 파업으로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냈던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그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엮었다. (후마니티스·1만2천원)

파워 오브 아트

사이먼 샤마 지음·김진실 옮김



세계적인 미술사학자인 사이먼 샤마(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유럽전역을 누비며 취재한 영국 BBC 방송의 프로그램 '파워 오브 아트'를 토대로 쓴 책이다.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내용과 저자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들을 특유의 입담으로 생동감있게 풀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EBS를 통해 '사이먼 샤마의 미술 특강'이란 제목으로 소개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객관적인 미술사를 나열하는 여느 책들과 달리 현장취재를 통해 직접 몸으로 겪은 스토리들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화가 8명의 치열한 삶과 예술

'파워 오브 아트'에는 카라바조와 베르니니, 램브란트, 피카소, 다비드, 반 고흐, 터너, 로스코 등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예술가 8명이 등장한다. 하지만 책에서 만나는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아니다. 미술사에서 천재예술가로 불리는 이들이지만 현실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인같은 존재도, 미술관에 박제된 액자속 그림같은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마치 잡박을 나서면 우연히 마주칠 것 같은 우리와 닮게 없는 평범한 인간들이다.

저자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창조과정의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회화의 살인마로 평생을 쫓기는 신세였지만 불멸의 신이 아니라 소멸하는 인간을 그려 현실의 이상화가 아닌 이상의 현실화를 구현한 위대

한 예술가였다. 베르니니는 차가운 돌조각에 인간의 뜨거운 숨과 욕망을 불어넣었으며, 램브란트는 역사화의 새 장을 연 선구자였다. 전쟁에 맞서 예술이 인간의 의분을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피카소,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고통과 비극의 감정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로스코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의 질곡 많은 삶과 결작의 탄생과정이 숨겨져 펼쳐진다. 풍부한 도판과 상세한 설명이 마치 8편의 예술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시대의 관습에 반기를 들고 세상을, 나아가 역사를 바꾸고자 했던 이들의 삶은 진정한 예술의 힘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게 한다.

〈아트북스·3만6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이자대출 최고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입지

분양문의 062) 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양사: (주)지엠지산업개발

地友 부동산컨설팅
봉선동 남구청앞 슬퍼타운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덕리현모집

대표 임근철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분양 상담사
·초담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2-1(명의변경가능) 80㎡ 미용인 상가용지, 8만5000원
▶수완지구 720㎡ 3.3만㎡ 600㎡인 아파트단지 333-3 80㎡ 대단지 상가용지, 아파트단지 720㎡ 3.3만㎡ 800㎡인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내 상가용지 500㎡ ㎡당 190만
▶수완지구 35㎡ 대단지 버스정류장 앞 상가용지 820㎡ ㎡당 300만
▶수완지구 35㎡ 대단지 버스정류장 앞 상가용지 4,231㎡ ㎡당 70만(부동산) 매각 374㎡ ㎡당 30만(부동산) 주거래 (전월임대)
▶수완 신도시 광동7(대단지) 지하철도 안 상가용지 286㎡ ㎡당 2억 9,000만
▶수완 신도시 광동7(대단지) 623㎡ ㎡당 28,000원
▶수완 신도시 광동7(대단지) 28,000원 한지 전으로 사용 15㎡부터 전매가능 도포전

상가매매
▶수완 신도시 광동7(대단지) 1,500세대 전용대형상가 (현재 상가용) 금매 425평(실용수20평) 매각720 (용 8,000만원)
▶수완 신도시 광동7(대단지) 1,500세대 전용대형상가 (현재 상가용) 금매 425평(실용수20평) 매각720 (용 8,000만원)

상가임대
▶북구 양산동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권 1층 124㎡ 보증금 5,000만 원200만
▶북구 양산동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권 2층 248㎡ 보증금 4천 원170만
▶북구 양산동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권 3층 248㎡ 보증금 4천 원150만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자상,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점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인과, 피부과(아미비인후과)등 임대중점수대형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라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콘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생계형, 음식, 호프, 고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결정진단·인테리어

- ▶서구 매일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5십만
- ▶서구 생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 ▶서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 ▶서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 ▶서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원80만원
- ▶광산구 쌍암동 보증금 6천 원300만원
-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원300만원
-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원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영업 상담상담비용 2천만원에서 10%까지 다양하게 배제 임대 수시 접수합니다.※